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2021년도 5급 공채 이어 입법고시 지원자도 늘어나

- 현재 3600여명...전년 대비 10%p 이상 증가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원자가 다소 늘어난 가운데 8일 원서접수가 끝난 입법고시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2021년도 입법고시는 지난 1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 8일 마감했다. 취소 기간은 10일까지다.

입법고시 원서접수 초반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지만, 막판 지원자들이 크게 늘면서 총 지원자는 3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입법고시 지원자는 3225명으로 선발예정인원(15명) 대비 평균 215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지원자가 3600여 명에 달하면서 경쟁률도 더욱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지원자를 보면, 일반행정은 6명 선발예정예 1898명이 지원해 3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는 지원자 증가를 고려하면 350대 1 내외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직은 6명 모집에 794명이 지원해 1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재경직은 일반행정과 법제직보다 증가 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3명을 선발한 법제직은 533명이 지원해 1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법제직 합격자 모두 변호사 자격자였다. 올해 법제직의 지원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년 만에 1명을 선발하는 사서직은 지원자가 변동 폭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50대 1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지원자 수는 10일 취소기간이 끝난 후 설 연휴 지나서 확정, 공개될 예정이다.



입법고시도 애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늘면서 1차 관문의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PSAT에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처/법률저널)